

도시철도 설계비 국고지원 '영남 편중'

확정된 광주 2호선, 192억 요청에 30억만 반영 용역단계 경남엔 3건이나 'MB정부 막판 퍼주기'



올림픽 응원... 흰고래 축구쇼
런던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24일, 여수세계박람회 최고의 명물로 떠오른 흰고래 '벨루가' 3마리가 한화 아이아플라넷의 대형 수조에서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수중 축구 쇼'를 펼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국책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영남 편중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 지역민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비 총 350억원 중 내년엔 소요될 국비 192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시가 요청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억원만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시가 요청한 국비 192억원은 국가교통정책실사무위원회 심의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2013년 국비 지원 금액인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를 무시하고 '필급예산'으로 생색만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광주시에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비 26억원을 확보한 뒤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간 국비를 반영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경남 마산~창

원~진해(33.9km)와 부산 사상~하단(6.9km)간 도시철도는 현재 기본계획 승인 요청중인데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각각 15억원과 22억원을 반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양산선(노포~북정·14km)도시철도는 현재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중인데도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부산시와 경남도가 도시철도 사업비로 신청한 내년 국비 예산 중 35%와 44%, 20%를 반영해 준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돼 승인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요청액의 15% 정도만 반영된 것은 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데다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정책에 이어 대형 국책사

업까지 영남 편중이 지속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권 말기 국비 예산 '영남 퍼주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미 협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인 288억원 중 국비 192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서는 조사 및 측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1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30억원으로는 기본설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지역 설계비는 '필급' 지원하고,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영남지역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중앙부처의 지역편중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해 머리숙여 대국민께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李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사과

이명박 대통령은 형남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24일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일기 첫해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 두 차례에 이어 2009년 세종시 수정, 지난해에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지난 2월엔 측근 비리와 각각 관련된 것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보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주시의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한미 합작투자사업 등 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욕적으로 출범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초반부터 뼈가거리고 있다.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일선상의 이유로 4명이 사퇴하면서 특위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서정성 의원은 23일 일선상의 이유로 특위 위원 사퇴의사를 밝혔고, 앞서 진선거·김민중·김영우 의원 등 3명이 사퇴해 사퇴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구성 초기 10명이었던 특위위원은 6명으로 줄었다. 이들 의원은 외부적으로는 지역구 사정과 개인 일정 때문에 특위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의회에 밝

투자사업 검증 그렇게 버르더니 광주시의회 특위 구성부터 뼈가

4명 사퇴...위원 3명 껌코 미국업체 대표 만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는 특위 활동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를 주장하는 등 특위 구성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고,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간 갈등과 대립 등 후유증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도 있다.
특위는 지난 16일 광주시의 3D컨버팅(입

면서 특위 운영은 물론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상필 위원장 등 특위 위원 3명은 25일 서울에서 '부실투자'논란이 일고 있는 3D 분야 한미합작투자법인 껌코의 미국 측 파트너인 K2AM사의 브리튼 리 대표를 직접 만나 시가 송금한 650만 달러 투자금의 사용처와 기술테스트 자금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광주시의 요구에도 송금한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벤더(Vender·판매사) 측에 돈을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투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당신의 기부가 예술창조 에너지가 됩니다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복지국가 대한민국
예술을 키우는 작은 나눔의 시작,
크라우드펀딩과 함께 하세요.

2012 독서의 해
행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든다.

"나에게 국악은 삶 그 자체"
국악인 이자람

"나에게 음악은 삶의 열정"
바이올린연주자 용재오닐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의 열정과 희망, 사랑, 꿈입니다"

"나에게 연극은 삶의 아름다움"
연극인 / 영화배우 추상미

"나에게 발레는 삶의 희망"
발레리노 이원국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예술을 키우는 작은 나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가 자신들의 예술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받는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창작활동 모금방식으로 주로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fund.arko.or.kr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 02)760-4864